

# 교육개혁안에 따른 한문학과와 한문교육과의 향후 전망

이 명 학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교수



지난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위원회 (이하 교개위)의 교육개혁안 발표로 우리나라 대학은 질적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제 대학은 시대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자기 변환을 하지 않고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되고 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교육개혁안의 근본 취지는 이제까지 수동적인 자세로 학생을 선발하여 제한된 틀 속에서 교육하던 '공급자(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는 '수요자(학생)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대학간의 경쟁은 물론 대학내 학과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비인기학과 또는 기초학문 분야는 현재보다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특히 한문교육과와 한문학과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교육개혁안 중 중요한 사항

은 교원양성제도의 개선방향(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교원의 자격을 대학원 학력 수준으로 상향조정함)과,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졸업이 수학점의 1/6~1/4로 전공이수학점을 하향조정함)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이 한문교육과·한문학과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원양성제도의 개선방향과 한문교육과의 위상

사립대학교 사범대학은 1972년 당시 문교부로부터 '중등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간 당국에서 무원칙하게 사립 사범대학을 인가해주고, 아울러 각 사립대학교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수단으로 사범대학 내에 학과증설 및 학생정원을 증원한 바,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2만 명에 이르는 사범대학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지원이나 교원수급정책 등 현실 여건은 이에 뒤따르지 못해 일선 교사로 임용되는 인원은 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전체 졸업생의 5%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사범대학은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일선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형편이다. 결국 국가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로 진출해야 하나 이 또한 모집 인원이 감소 추세이다. 사범대학은 이와 같이 외부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내적으로 사범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교과과정에도 있다. 사범대학 교과과정은 일반학과와 동일한 교과목에 교직과목이 더해진 형태로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범대학 졸업생으로서 습득해야 할 중요한 영역인 교과 자체의 교육론 또는 교육 방법론에 관한 교과목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교과론을 전공한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결국 사범대학은 사범대학만의 독자성·특수성을 갖지 못한 채 현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교개위는 향후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을 전문(교육)대학원을 마친 석사학위소지자 수준으로 격상하고 교과과정은 학교 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재의 사범대학 교원양성 체계에서 탈피하여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양성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도 일반학과와 다를 바가 없는 현재의 사범대학 교과과정에서 학교현장과 연계된 현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일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향은 비단 한문교육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사범대학의 위상과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겠다. 교원양성을 전

문대학원 수준에서 할 경우, 사범대학은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목적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사범대학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단과대학과 하등 다를 바가 없게 되므로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의 수와 질은 급격히 하락하리라 생각한다. 현재 한문교육과는 전국 21개 대학에 22개 학과(성균관대학은 사범대학과 문과대학에 각각 한문교육과, 한문학과가 있음)가 있다. 1973년 학과 설립 당시에 '한문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사범대학에 한문교육과가 신설되었으나, 그 뒤 사범대학의 학생정원을 동결하면서 문과대학에 한문학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한문교육과 졸업생과 문과대학 한문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한문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매년 전국적으로 500여 명씩 배출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현직 교사로 임용되는 수는 10% 정도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 데다가 교육개혁안 중 '교원 임용제도의 개선방향'이 금년 하반기에 확정되면("교원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전국에 있는 사범대학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한다." - 1995. 6. 13, 『동아일보』, 이명현 교개위 상임위원장) 사범대학뿐 아니라 각 대학 한문교육과의 위상도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문교육과의 입장을 냉정하게 검토하여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문과대학으로 전환을 하든, 문과대학 한문학과와 학과통합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전환을 해야만 될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도 대학에 따라 졸업생의 10%나 10% 미만밖에 교원 임용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한문교육과 교수나 교사의 꿈을 안고 입학한 재학생 모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확정 발표할 교개위의 '교원임용제도' 개선안은 한문교육과의 장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2.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와 한문학과의 위상

교개위의 교육개혁안 중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는 대학내 단과대학과 학과 간의 벽을 허무는 획기적인 사항이다.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가 시행되면 대학 내의 각 학과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며, 한 학과 안에서도 교수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는 졸업이수학점의 1/6~1/4로 전공이수학점을 하향조정하여 다 전공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각 대학은 최소 인정학점을 졸업이수학점의 1/4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학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졸업이수학점을 120~140학점으로 가정했을 때, 전공인정 학점은 30~35학점으로 4년간 전공과목을 10~12과목 정도 수강하면 그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는 대학의 이른바 비인기학과 또는 기초학문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향후 학생들이 비교적 손쉽게 입학할 수 있는 학과로 입학한 후 이른바 인기학과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되며 4년간 10과목 정도 전공과목을 이수하면 되므로, 대부분 비인기학과의 경우 3,4학년 전공과목 중 많은 수가 폐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문학과는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가 미칠 파장을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한문교육과에도 해당되는 문제라 하겠다).

이제 대학도 그러하겠지만 학과도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장치, 학문성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교수방법, 흥미있고 유익한 교과목의 개발 없이는 현재처럼 학생들을 학과의 틀 속에서 매어 둘 수 없게 된 것이다.

## 3. 대응 방안

### 1) 한문교육과

현재 한문교육과의 '교직진출 상황'이나 교육개혁안의 '교원임용제도 개선' 등으로 볼 때 사범대학 한문교육과가 문과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세에 따른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20여 년 동안 한문교사를 배출하여 중등교육의 일익을 담당해 온 긍지와 전통도 소중하기는 하나, 내년도 입학생들이 졸업할 4년 뒤의 여건을 염두에 둔다면 한문교육과의 문과대학 이전은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다른 대안으로 현재 한문교육과의 학생정원을 최소한 감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또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문교육과를 졸업하고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더라도 교사가 되기 위해 또 다시 일반학과 졸업생들과의 경쟁을 통해 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야 한다면 굳이 한문교육과를 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의 혜택을 받아 인기학과의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한문교육과를 발판삼아 입학하거나, 질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어 한문교육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한문학과

앞서 말한 바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의 시행으로 한문학과는 대학내 타학과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최소 전공인정 학점만을 취득할 경우 많은 전공과목은 폐강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학문 영역과 흥미 영역 두 부분을 모두 충족시킬 특성화된 교과목과 효과적인 교수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문학과는 동양의 文·史·哲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

론이 있을 수 없다. 한문(교육)학과가 신설될 당시 각 대학마다 학과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방향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 따라 초기에는 동양철학·사학을 전공한 분들이 한문(교육)학과 교수로 부임하는 예도 흔히 있었다. 그 뒤 한국한문학을 중심으로 한문학과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한문학을 주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한문학이 동양고전학에 대한 이해가 그 기본 토대가 되므로 각 대학 한문학과 교과과정에 중국철학·중국문학을 편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간혹 그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비중을 높여 편성한 대학들도 있다. 그러나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의 시행으로 학과의 의미가 거의 없어지게 된 시점에서 대학 내에 중어중문학과·동양철학과 등과의 교과목 중복을 피하고, 이들 학과와 견주어 한문학과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과목의 개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한문학이 비중있게 편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학원

수준의 교과목은 그 개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문성을 충분히 견지하면서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흥미있는 교과목을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한문학과의 설립목적인 '우리 고전'과 '한문학의 유산'을 연구 계승할 인재를 모으고 양성하며 학문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한문학과 교수들의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한편, 대개의 대학에 '기초한문', '교양한문'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양과목을 현 수준에서 한 단계 낮추어 더욱 실용적이며 흥미를 끌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내용을 개편하는 것도 한문학과의 위상을 좀 더 공고히 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

이명학/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한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동 대학 한문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EBS 교양한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EBS 교육방송 교양한문』 등이 있고, 논문으로 "한문단편의 작가연구", "북벌론과 비판의식", "김씨남정기에 대하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